



즉시 배포용: 2018년 2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전 지역의 사전 투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30일 예산 개정안에 대해 발표

모든 뉴욕 카운티는 선거일을 앞두고 12일 동안 사전 투표를 제안할 예정

선거 과정을 보장하고 투표장에서 모든 뉴욕 주민이 의견을 표출하는 기회를 얻도록 보장하는 주지사의 민주주의 어젠다의 일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 지역의 사전 투표를 포함하여 투표 개혁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30일간의 예산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뉴욕 카운티가 선거일을 앞두고 12일 동안 사전 투표를 제안할 수 있도록 2019 회계연도 행정부 예산(Fiscal Year 2019 Executive Budget) 중 대략 700만 달러를 제공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그 어떤 뉴욕 주민도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직장에 가는 것, 학교에 가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약속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일을 겪어선 안 됩니다. 저희는 뉴욕주 전역에 사전 투표를 제안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방해물을 허물고 모든 뉴욕 주민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뉴욕 주민들의 투표 과정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뉴욕주에서 사전 투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모든 카운티는 선거일을 앞두고 12일 동안 주민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전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평일에는 최소 8시간, 주말에는 5시간 동안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카운티는 주민 50,000명당 1개의 사전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며, 양당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County Board of Elections)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기준으로 사전 투표소의 구체적인 장소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조치는 자유롭고 투명한 선거를 보장하며 뉴욕주의 고무한 투표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대담한 개혁인 Cuomo 주지사의 [민주주의 어젠다](#)의 일부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뉴욕은 사전 투표가 불가능하고 부재자 투표 시 사유가 필요한 13 개의 주 중 한 곳입니다. 뉴욕 주민들은 선거 당일에 카운티에 있지 않거나 장애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경우처럼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직장, 학교, 개인적인 약속 등은 유권자들이 미국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이러한 저해 요소를 개선하고 선거일의 긴 투표 줄을 줄이며 등록 오류를 조기에 감지 및 수정하여 투표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입니다. 현재 37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는 이미 유권자가 선거일 전에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